

광주글로벌모터스 1호차 ... 경형 SUV '캐스퍼' 나왔다



광주형 일자리
첫 성과물 탄생

<1> 대한민국 노사상생 모델 GGM

전국 최초 지자체 주도의 사회통합형 '노사 상생' 모델인 광주형일자리 사업의 성과물이 첫 선을 보였다. <관련기사 9면>

광주형일자리 사업으로 탄생한 광주글로벌모터스(GMG)에서 만들어진 차량이 1일 외관 공개 발표를 시작으로, 15일부터 시판용 차량이 본격 양산된다.

광주형일자리의 첫 성과물은 현대자동차의 1000cc급 경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으로 차량 이름은 '캐스퍼(CASPER)'다.

현대자동차가 오는 15일 출시 예정인 엔트리 SUV 모델 '캐스퍼'의 외장 디자인을 이날 최초로 공개했다.

연간 10만대 생산 능력을 갖춘 GGM은 국내에서 23년 만에 신설된 완성차 공장이다. 현재는 SUV만 생산될 예정이지만, 다양한 차종을 생산할 수 있는 혼류 생산 시스템을 갖췄다. 시설 일부 조정을 통해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 생산

이용성 시장 노조 설득해 사업 성공 외관 발표 ... 15일부터 본격 양산
광주, 미래형 자동차 선도도시 기대

도 가능하다. 따라서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을 품고 있는 광주가 향후 미래 자동차산업을 이끌어갈 선도 도시로 부상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광주형일자리 모델 첫 사업인 GGM 완공과 첫 차 양산까지는 많은 시간 소요와 우여곡절이 있었다. 광주형 일자리를 추진한 지 7년, 상생 협약 체결 2년 3개월 만에 첫 성과물이 나오게 됐다. 이처럼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은 사회적 대화와 노사민정 대타협을 바탕으로 한 협력적 노사관계라는 전제와 함께 민간투자 유치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광주형일자리 사업은 기존 완성차 업계 임금의 절반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정부와 지자체가 복리과 후생 비용 지원 등을 통해 임금을 보전하는 방식이다. 이로 인해 기업은 적정임금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한국 경제가 직면한 고비용·저효율 구조의 대립적 노사관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됐다.



현대자동차가 올해 하반기 출시 예정인 엔트리 SUV 모델 '캐스퍼(CASPER)'의 외장 디자인을 1일 최초로 공개했다. <현대자동차 제공>

이는 사회적 대타협을 바탕으로 든 지속가능한 양질의 지역일자리 창출사업인 셈이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처음 시도되는 만큼 노동계와 경영계 측이 쉽게 동의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려움이 뒤따랐다.

노동계는 '임금의 하향 평준화, 낮은 질의 일자리'라는 이유로 반발했고, 경영계도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양측의 상생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실제로 법인 설립 전인 지난해 초

까지만 해도 노동계의 사업 불참 선언으로 좌초 위기를 맞았다.

이런 가운데 이용성 광주시장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으로 노동계 사업 합류라는 극적 타격을 이끌어 내면서 사업이 본 궤도에 올랐다.

이 시장은 노동계와 갈등 속에서도 "노동계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며 강한 연대 의식을 거듭 강조했다. 이는 노동계의 마음을 돌려 놓는 동력이 됐다는

분석이다. 법인 설립을 위한 투자자 모집에도 어려움이 뒤따르긴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이 시장의 끈질긴 투자 유치 노력을 통해 투자자 모집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GGM이라는 광주형일자리 모델의 첫 성과물이 탄생하게 됐다.

특히 올해는 광주형 일자리가 정부의 제1호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으로 공식 선정되면서 수천억 원대의 투자보조금 등 각종 정부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됐다.

앞서 이용성 광주시장은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 시킨 공로로 더불어민주당 주관으로 열린 '2020년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1급 포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용성 시장은 "광주형일자리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균형을 찾기 위한 도전, 사람과 노동의 가치 존중, 노사협력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경제를 만드는 시도"라면서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 없는 지자체 주도 사회대통합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첫 성과물이 탄생하게 돼 기쁘고, 이를 통해 한국경제가 직면한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개선하고, 대립적 노사관계를 통한 한국 경제 재도약의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광주, 코로나 하루 확진자 30명대로

산발 감염에 곳곳 전수검사
전남은 이틀간 23명 확진

광주 곳곳에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산발적 감염이 이어지면서 학교, 교회, 건설 현장 등을 중심으로 전수검사가 잇따르고 있다. 전남지역도 이를 연속 신규 확진자가 20명대를 기록하는 등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1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현재 27명이 신규 확진돼 누적 확진자는 4117명으로 늘었다. 광산구 외국인 등 검사 관련 4명, 북구 지인 모임 관련 5명, 서구 가족 모임 관련 4명, 다른 지역 확진자 관련 6명, 광주 확진자 관련 3명,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유증상자 5명이다.

일일 확진자는 지난달 29일 30명, 30일 19명, 31일 37명 등으로 30명대로 올라서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광산구 거주 외국인 확진이 급증하면서 지난달 외국인 확진자는 677명을 기록했다.

확진자가 발생한 광산구 모 초등학교에서는 학생·교직원 등 373명, 북구 유치원에서도 68명을

전수 검사했다. 다행히 지포 환자를 빼고는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 유치원 확진자를 포함해 4명은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로 사업장별로 동선, 접촉자 조사가 진행 중이다. 북구 교회에서는 전날 확진자가 나온 뒤 교인 등을 검사한 결과 3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동구 건설 현장에서 2명이 확진돼 방역 당국이 현장 평가와 전수 검사를 하고 있다. 광주과학기술원(GIST)에서 2명, 북구 모 병원에서 1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전남에서는 이틀간 23명이 신규 확진됐다. 전남 누적 확진자는 1일 오후 2시 기준 2625명이 됐다. 지난 31일부터 이틀간 신규 확진자는 순천 8명, 나주 6명, 장흥 5명, 여수 3명, 해남 2명, 영광 1명이다. 장흥에서 나온 신규 확진자는 모두 다방·주점 관련 연쇄 감염으로 이 사건 관련해 누적 확진자는 21명으로 늘었다. 해남 신규 확진자 2명 역시 순천 다방·주점 관련 감염자들로 이 사건 관련 누적 확진자는 24명이 됐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9명은 자가격리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전자발찌 끊은 장흥 50대 성폭행 후 도주 ▶6면

벤투호, 오늘 이라크전 필승 다짐 ▶18면

신 팔도명물 - 독도새우 먹으러 가볼까 ▶22면

아날로그에서 최첨단까지 ... 2021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개막



디 뮤지엄·원다 바르셀로나 작 '색에서 영원까지'

2021 광주디자인비엔날레(10월31일까지)가 1일 광주시 북구 용봉동 비엔날레전시관에서 대관원의 막을 올렸다. '다-레볼루션'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폴란드, 이탈리아 등 세계 50여개 국가 421명의 작가와 국내외 기업이 1039종의 작품을 선보인다. 이번 디자인 비엔날레는 감성과 기술이 어우러진 다채로운 디자인과 관람객들의 눈높이에 맞춘 참여형 작품들이 눈길을 끌었다. <관련기사 16면>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건강하고 아름다운 여배우 손담비가 선택한
식후 3정으로 지키는 대사 건강

메타그린 골드

메타그린 골드 원포인트

- 고지방·고탄수화물 음식 섭취로부터 체지방과 콜레스테롤 개선
- 항산화와 뼈 건강까지 관리해 부족하기 쉬운 대사 영양 케어
- 오셀록 농장의 유기농 녹차가 함유된 프리미엄 녹차 정제

제품 상담 | 080-023-5454
구매 문의 | 아모레퍼시픽 카운셀러를 통해 구매하세요

“식사 후엔
메타그린 골드를
꼭 챙겨요”

바이탈뷰티

